

놀 곳·돈 쓸 곳 없는 광주, 타지에서 소비한다

역외유출률 26.7%...전국 4위
유입보다 유출이 큰 도시로
복합쇼핑몰·지역내 협력 시급

호남의 거점 도시이지만 복합쇼핑몰은커녕 특급호텔 한 곳 없고 백화점도 두 곳에 불과한 '노잼' 도시 광주의 소비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프라가 열악한 전남·전북 지역만이 광주를 찾아 유동, 의료 부문에 지출이 많았음에도 지난해 타 지역민이 광주에서 소비한 돈보다 광주시민이 타 시·도에서 지출한 금액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된 '광역시의 소비유출입 특징 및 시사점-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기준, 광주의 역외유출률은 26.7%로 유출액은 7900억원, 역내 유입액은 7500억원으로 400억의 차이가 났다.

광주의 역외유출률은 2022년 기준 26.5%였는데 이는 전국 6개 광역시 중 3번째,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도 4번째로 높은 수치다. 특히 지난 2018년 대비 2022년 역외유출률은 타 지역의 경우 대부분 하락했지만, 광주는 1.2%p 상승했고 지난 2018년 10위(25.3%)에서 지난해 4위로 순위가 크게 올랐다.

지역 거점 도시인 부산과 대전의 경우 2018년 대비 역외유출률이 각각 -4.6%p, -6.9%p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특히 한국은행 광전본부는 대전과 비교하며 광주지역의 대형유통업 진출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광전본부는 "대전은 경우 사이언스 콤플렉스가 지난 2021년 8월 완공된 이후 오프라인 유통업 관련 소비유입이 크게 늘었다"며 "현재 진행중인 복합쇼핑몰을 필두로 지역 내 랜드마크를 통해 역외유출이 확대되는 것을 막고 광주로의 외지인 관광 수요를 자극해야 소비 활력을 높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지난해 광주지역 역외소비 유출의 지역별 비중을 살펴보면, 전남이 44.1%로 가장 많았고 서울(19.9%), 경기(8.0%), 전북(7.2%) 순이었다. 다른 광역시와 비교하면 광주시는 인근 지역에 대한 소비 비중(51.3%)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서울을 가깝게 둔 인천이 74.4%로 가장 높았는데, 광주는 그 다음이었다. 그만큼 놀거리가 부족한 광주를 떠나 수도권은 물론 가까운 전남과 전북에서 돈을 썼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의 역외소비 유출을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 소가 2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오프라인 유통업(21.7%), 연료판매(9.9%), 의료기관(9.8%) 순이었다.

반면 역내소비 유입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광주의 역내유입률은 2020년 24.9%까지 하락



광주·전남지역에 한파주의보와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20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광주YMCA앞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영하의 강추위 속에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한 이후 회복세를 보이기 했지만 2023년 상반기 기준 25.9%로 광역시를 기준으로 대구와 인천, 부산 다음이었다.

지역별 비중은 어쩔 수 없이 광주를 찾고 있는 전남(65.9%)과 전북(10.0%) 순으로 많았고, 뒤이어 경기(6.9%), 서울(4.5%) 순이었다. 수도권 비중이 2018년 13.1%에서 2022년 12.6%로 오히려 줄었다. 하물며 국내여행지로 광주를 방문한 횟수는 17개 시도 중 16위로 관광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은 광주지역의 음식점 소비 부문에서 순유출이 일어나는 것 또한 광주에 대한 관광 관련 수요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유통업체 수도 전국을 기준으로, 광역시가 무색할 정도였다. 광주의 유통업체 수는 17개 시도 중 하위권(12위) 수준으로 백화점 수는 2개였다.

한국은행은 유통업체 수로만 보면 광주 유통업 인프라의 발전 정도는 낮은 수준이며 호남권의 대형할인점 등 순유입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지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 과장은 "광주지역 역외유출의 확대를 줄이고 역내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복합쇼핑몰 건설, 호남권 내 협력 강화, 지역기업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다"고 진단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20cm '눈폭탄'

광주·전남 대설주의보
최강한파에 영하 11도

광주·전남에 오는 22일까지 적설량 20cm에 달하는 '눈폭탄'이 쏟아질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0일 광주와 전남 10개 시·군(나주, 화순, 목포, 장흥, 담양, 무안, 함평, 신안, 해남, 진도)에 대설주의보를 발령했다. 영광과 영암에서는 대설경보가 발령됐다.

눈은 22일 밤까지 지속적으로 내릴 전망이다. 예상 적설량은 5~20cm다. 전남 서부지역에는 30cm 이상 쌓이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도 전날 대비 5~10도 수준으로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21일 아침최저기온은 영하 10~영하 4도, 낮최고기온은 영하 4~1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22일에도 아침최저기온은 영하 11~영하 5도, 낮최고기온은 영하 4~1도를 기록하는 등 당분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0일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곡성, 구례, 화순 등 전남 3개 지역에 한파주의보를 발령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눈이 많이 내려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눈이 쌓이고 얼어 빙판길이 되는 곳이 많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고, 등산객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며 "이런대로나 골목길, 경사진 도로, 그늘진 도로 등에도 눈이 쌓이거나 빙판길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 보행자 안전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달빛철도' 연내 통과 여부 오늘 결판

교통법안소위, 오전 9시 표결
광주시, 7대 3 통과 가능성 높아
27일 법사위·28일 본회의 주목

여·야 역대 최다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달빛철도 특별법' 연내 통과 여부가 21일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9시 국회 첫 관문인 소위원회를 다시 열고 표결 처리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2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는 지난 19일 달빛철도 특별법을 심사했지만, 위원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논란이 되는 예타면제 대신 '신속예타'를 중재안으로 제시했지만, 광주시와 대구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도입된 '신속예타'는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 최장 2년이 걸리는 예타기간을 최소 6개월 안팎으로 단축시키는 제도로, 기간은 단축되지만 사실상 기존처럼 예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신속예타' 무산 이후 국민의힘 소속 모 의원은 1~2일 정도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으며, 최인호 소위 위원장은 표결을 전제로 재심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소위 소속 여야 의원 10명은 21일 오전 9시 소위를 다시 열고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소위는 더불어민주당 6명(최인호·김수홍·민홍철·이소영·한준호·홍기원), 국민의힘 4명(강대식·박정하·서일준·정동만)으로 구성돼 있으며, 민주당 위원 6명과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이 찬성파로 분류됨에 따라 '7대 3' 통과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예상대로 달빛철도 특별법이 소위를 통과하게 되면 곧바로 같은 날 오전 10시 국회위 전체 회의를 거쳐 27일 법제사법위원회와 28일 본회의 통과 절차를 밟게 된다. 이와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달빛철도는 동서화합을 상징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을 깨서 끝까지 힘을 모아 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5·18조사위, 그날의 진실 하나도 못 밝혔다 ▶6면

시 페퍼즈 '막내팀 한계' 탈출 가능할까 ▶18면



신발도명물 - 탕갈탕갈 진해만 피조개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쿠팡 풀필먼트서비스(유)」 **전액 국비**

장애인 취업 희망자 모집

「쿠팡 풀필먼트서비스(유)」
쿠팡(주)의 그룹사로 각종 상품의 판매, 유통, 배송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 훈련내용 : 재택 사무직 ※ 맞춤형 훈련은 채용을 전제로 한 훈련 과정이며, 업체에서 요구하는 근무능력 만족 시 훈련 종료 후 입사 가능

직 무	훈련내용	근무 조건	모집인원
재택 사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주제별 데이터 수집 및 정리) - 전화상담(일용직 근로자 계약직 전환상담) - 업무배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시간(휴게시간 30분 포함) 09:30~14:00 또는 13:00~17:30(선택 가능) - 급여: 월 108만원(통신비 포함), 2024년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복리후생: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상해보험가입(본인, 가족대상), 경조사 지원 명절선물, 종합건강검진(1년 재직 이상), 쿠팡캐시 적립/지급 - 고용형태: 12개월 계약(수습 3개월), 이후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 연장가능 	10명

☑️ 일정

서류 접수

→

면접
01.03(수)

→

맞춤훈련
01.05~02.05
(4주)

→

최종
평가

→

입사
02.07(수)

- 서류 접수 : ~ 24.01.01(월) 20:00(이메일 제출)
- 면접 일자 및 장소 : 24.01.03(수) 광주디지털훈련센터 면접실
- 맞춤훈련 합격자 발표 : 24.01.03(수) 16:00 이후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훈련기간 : 24.01.05(금)~24.02.05(월) 4주
- 훈련장소 : 광주디지털훈련센터, 통학 훈련(기숙시설 없음)
- 채용예정일자 : 24.02.07(수)

☑️ 훈련생 특전

- 훈련비용 전액 국비지원(훈련비, 교재 등) 및 중식 제공
- 훈련수당 및 교통비 지급 (최대 월 334,000원)
- 식비(중식) 지원 - 훈련 중 상해보험 가입
- 훈련시간 : 10:00~16:45(2주 실무 통학훈련), 13:15~19:00(2주 재택 실습)

☑️ 지원자격(모두 만족)

- 만 19세 이상 구직 등록장애인 또는 상이 등급에 해당되는 자
- 광주 디지털훈련센터에 통학하여 맞춤훈련 수강을 받을 수 있는 자
- 엑셀(기초) 등의 컴퓨터 활용 가능한 자 - 집에서 재택근무 환경을 갖출 수 있는 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디지털훈련센터 **입학상담 ☎ 062)448-1188**

광주 서구 천변로 268, 19층(광동 KDB생명 빌딩, 구 금호생명 빌딩)